

2019년 1월 23일

## 제86회 재단법인성남문화재단 이사회 회의록

재단법인성남문화재단

○ **司會 경영국장 최현희**

안녕하십니까? 경영국장 최현희입니다.

이사회에 참석해 주신 이사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사장님께서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금일 이사회는 박명숙대표이사님께서 회의를 주재 하시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이사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훈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人事 및 拍手)

신경천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人事 및 拍手)

박명숙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人事 및 拍手)

금일 재단간부 소개는 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사회 회의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 성원보고
  - 개 회
  - 인사말씀
  - 안건심의로
    - 인사규정 중 개정규정(안)
    - 선임직 임원 선임(안)
- 폐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대표이사 박명숙**

경영국장님 성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원보고**

○ **司會 경영국장 최현희**

4명의 이사님 중 3명이 참석하여 성남문화재단 정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개최를 위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 개회선언**

○ **대표이사 박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성남문화재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 이사장 三 打 )

**3. 국민의례 생략**

○ **司會 경영국장 최현희**

박명숙대표이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4. 인사말씀**

○ **대표이사 박명숙**

안녕하십니까? 2019년 첫 이사회에서 인사드립니다.

2019년에 더 많은 시민들이 재단을 찾고 참여할 수 있는 우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성남문화재단은 예술가, 시민과 함께 2019년에도 문화도시성남의 길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사회는 제8대 성남문화재단 이사회의 선임직임원을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재단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이사님을 선임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司會 경영국장 최현희**

이어서 안건심의를 하겠습니다.

**5. 안건심의**

○ **대표이사 박명숙**

심의안건 의안번호 제389호 인사규정 중 개정규정 안을 상정합니다.

경영국장께서는 의안번호 제389호 인사규정 중 개정규정안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司會 경영국장 최현희**

의안번호 제389호 인사규정 중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3쪽입니다. 기술관리직에 학예관리 분야를 신설하여 미술관 학예업무의 전문성과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 3쪽부터 6쪽까지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이사 박명숙**

의안번호 제389호 인사규정 중 개정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 박창훈**

학예관리분야를 신설해서 재단의 기능을 보강하려는 의도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일반직이 아닌 기술직렬로 들어 가는 이유가 있는지요

○ **총무부장 김철주**

노조와 협의하여 현재 기술직급이 5급까지 승진을 2급까지 승진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신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이사 박창훈**

앞으로 신설되는 조직이 있는건가요?

○ **司會 경영국장 최현희**

별도 조직은 없습니다.

○ **총무부장 김철주**

저희가 전시 분야에서 학예관리직을 선발을 할 경우에 이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공무직보다는 7급으로 뽑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이사 박창훈**

그러면 7급으로 뽑아서 전시기획부에 소속으로 해서 운영을 하신다?

○ **총무부장 김철주**

네. 기술 관리직으로 편입이 돼서 기술 관리직 직원들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 **이사 박창훈**

전시기획부가 기술 관리부에 편제가 되어있나요? 직재상??

○ **총무부장 김철주**

아닙니다. 학예직만 기술 관리직 T.O. 에 준해서 승진인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사 박창훈**

그러니까 조직하고 직원배치하고 이게 잘 맞아야 될텐데..

신경천이사님은 생각이 어떠신지요?

○ **이사 신경천**

저도 박창훈이사님 말씀대로 학예직이 기술직은 아니거든요

일반직군에 들어가는게 맞는데 학예직을 기술직으로 하는 이유가 2급까지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 **이사 박창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예직을 신설해서 채용을 하죠?

그러면 7급부터 승진을 할거죠?

그러면 만약에 학예직은 최고로 승진을 하게 되면 2급까지 가는데?

전시기획부장은 몇 급이죠?

○ **총무부장 김철주**

전시기획부장은 4급입니다.

○ **이사 박창훈**

4급이에요? 4급까지 승진한다고 하면 기술직군에 있다가 보직은 전시기획부로 받을 수 있나요?

○ **총무부장 김철주**

지금 무대운영부장이 2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제도로는 5급 차장까지 승진을 하게 되어있고 부장으로 명하였습니다.

지금 개정이 되면 무대운영부장도 부장으로 그리고 국장까지 승진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학예직을 기술직으로 보진 않았고요 기술 관리직, 즉 기술직과 관리직을 통폐합해서 기술 관리직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 **이사 박창훈**

알겠습니다.

조직 운영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부장 김철주**

예. 잘 알겠습니다.

○ **대표이사 박명숙**

더이상 질의하실분이 안계시면 의안번호 제389호 인사규정 중 개정규정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理事 있음 ]

( 대표이사 三 打 )

○ **대표이사 박명숙**

심의안건 의안번호 제390호 선임직 임원 선임안 대하여 상정합니다.

경영국장께서는 심의안건 의안번호 제390호 선임직 임원 선임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司會 경영국장 최현희**

의안번호 제390호 선임직 임원 선임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7쪽입니다.

성남문화재단 임원의 임기가 2018년 11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제 8대 임원을 선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 7쪽부터 38쪽까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이사 박명숙**

의안번호 제390호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 박창훈**

지금 11분을 모시는 거죠?

○ **司會 경영국장 최현희**

네 11분을 모시고요, 근데 저희가 기준을 잡아봤습니다.

성남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저희가 이사진으로 모시는 것이 문화예술을 운영하고 집행하는 조직이 맞지 않나 싶어서요 문화원 예총 민예총 회장 원장님을 이사회에 초빙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 예술과 관련된 분들도 좀더 적임자 분들을 모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사 신경천**

임기가 2년 이죠?

○ **司會 경영국장 최현희**

그렇습니다.

○ 이사 신경천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는데 2년이 끝날 때마다 연임 할 건지 말건지 이사회를 의결하나요?

○ 司會 경영국장 최현희

보통은 이사회를 통해서 하기보다는 임기가 끝나면 다시 재임용 하는 방향으로 진행 하고 있습니다. 당연직에 대해서는 자리가 바뀌면 바로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사 신경천

당연직은 그렇게 되고 당연직이 아닌 선임직들은 임기가 2년이면 임기가 만료되면 연임 할건지 말건지 결정하는지 2년이면 2년 임기가 만료된 시점에 해촉을 했다가 다시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서 한번 한사람도 다시 할 수 있지만 그걸 안거치고 연임시키는 그런건 없다 이거죠?

○ 司會 경영국장 최현희

임기 만료시 연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 이사 박창훈

지난번 이사회를 와서 진행 하는걸 보니까 이사님들 중에서 임기가 되니까 전체 사퇴하시는걸로 이렇게 의결을 하시더라구요. 지난번에 그랬어요. 임기가 11월 만료 되니까 그 전에 마지막 이사회를 하면서 이사장님께 선임권한을 넘겨드리는 차원에서 전체 일괄로 '사퇴하겠습니다' 이렇게 의결 내버리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오늘 진행 되는 거고, 우리 정관도 보면 경영국장께서 설명을 했는데 정관에 있는 임원의 임기규정, 연임규정을 다른 권익위 권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추어서 정관을 개정해야할 필요가 있어요. 개정해놔야되요. 다음에 이사회 전에는 선임직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하고 지금 경영국장께서 얘기하신 문화원장, 민예총 회장, 예총 회장은 임기제를 줘야 임기 내에 그분들이 당연직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당연직을 신설 추진

그리고 문화원장, 민예총, 예총은 임기가 4년씩이죠? 4년인데 그분들을 당연직으로 한다고 하면 정관에 있는 조항을 고쳐놓고, 당연직으로 해놓고 이분들은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임기로 다른데는 대게 보면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속 연임할 수 있는게 아니고요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전례로 보면 늘 전원이 사표쓰는걸로 지난번에 봐서 운영하는 나름이겠지만 정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11명을 모셔야 되는데 28분이 오셨자나요?

오늘 선임을 해야 되는데 경영국장께서 문화진흥을 위해서 관에 계신 분들을 모시겠다해서 당연직으로 3분하고 나머지는 문화재단에 전문적인 문화진흥을 하실 수 있는 28분 중에서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 **司會 경영국장 최현희**

예 그래서 한분 한분 보면서 프로필이나 전공부분을 차례차례 보면서 심사표에 가부를 체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 성함과 사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사 신경천**

제가 심사하는 부분에서 잘 모르니까.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司會 경영국장 최현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사 박창훈**

우선 지금 세분은 하기로 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될 분들은 여기서 결정하자구요 그러니까 문화원장님 예총회장님 민예총회장님은 우리가 당연히 하자 그런 제안도 있구, 나도 동의를 하는거 거든요. 세분은 하고 나머지 여덟분만 모시면 되잖아요 그쵸? 세분은 그러면 하는걸로 하시지요

○ **司會 경영국장 최현희**

아 오늘은 저희 감사 한분과 예총의 회장님단이 선출 예정이 있고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은 현 예총 회장님께서 서류를 넣으시기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분을 지금 현재는 정관이 바뀌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예총 회장님 자리를 공석으로 두는걸로..

○ **이사 신경천**

그러면 열분만 선임하면 되겠네요.

○ **이사 신경천**

예총회장 선거가 2월달인가요? 4월달인가요?

○ **司會 경영국장 최현희**

2월달 입니다.

○ **이사 박창훈**

아 그때가서 하자?

○ **司會 경영국장 최현희**

네



○ 이사 박창훈

근데 이게 정관이 개정이 안되어 있는데 그때가서 당연히 모신다는 명분이 없는거잖아요. 새로 뽑는 이 위촉되는 절차를 거쳐야지 우리 정관에는 현재로서는 당연히 되지 않으니 그런것들을 감안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시會 경영국장 최현희

그렇죠 그때도 다시 공개채용을 진행하는 절차를 해야 합니다.

○ 시會 경영국장 최현희

네. 그럼 1번으로 김대진 성남문화원장님이시구요 제5대, 6대, 7대 성남문화재단 이사님을 지내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까지, 이번까지 하게 되면 4차 연임하시게 됩니다. 이분은 워낙에 지역의 영향력이라던지 문화계에 성남문화에 대한 역사 지킴이로서의 책임을 많이 가지고 있으신 상황

○ 이사 박창훈

문화원장님은 무조건 모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 시會 경영국장 최현희

네.

○ 대표이사 박명숙

네.

○ 이사 신경천

네. 저도 동의입니다.

○ 시會 경영국장 최현희

네. 가, 부를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 시會 경영국장 최현희

그리고 이경화 체육무용학박사님이시고 오연문화예술원 이사장이십니다. 제3대 성남문화재단 이사님을 지내셨고 지금 현재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계십니다. 이런분은 저희 지역에서도 자랑이지만 국가적인 일도 하시는 분입니다.

○ 이사 박창훈

뭐 저희 행사나 이사회나 잘 오실수 있는 분이에요?

○ **司會 경영국장 최현희**

네 그렇습니다 활동이 좀 많으신걸로 알고 있구요

○ **이사 박창훈**

우리 문화재단에 꼭 필요로 오셔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이라는 말씀이시죠?

○ **司會 경영국장 최현희**

네 그렇습니다. 프로필을 좀 자세히 한번 보시면 서류나 이런부분을 열심히 준비를 해주셨더라구요 그리고 예술, 문화, 체육 무용계등에 영향력이 있는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이사 신경천**

이렇게 하시면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문화재단에서 응모한 28분에 대해서 추천식으로 설명해주시면 효율적일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이사 박창훈**

저도 동의합니다.

○ **대표이사 박명숙**

경영국장님 신경천이사님, 박창훈이사님의 의견을 받아 응모한 28분중 문화재단 이사로 적합한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 **司會 경영국장 최현희**

그러면 앞 페이지는 넘어가구요 7페이지 7번 송기홍 이분은 저희 감사님으로 모실 예정입니다.

○ **이사 박창훈**

오기전에 사전에 설명을 봤더니 감사님은 한분만 오신거 같던데, 자격요건은 다 충분히 갖추셨죠? 회계업무를 잘하실 수 있고

○ **司會 경영국장 최현희**

네.

○ **司會 경영국장 최현희**

그리고 조덕희 아트디렉터로 되어있으시구요 이분은 디자인과 국가의 진행하는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하는 분으로 현장에서 뛰고 있으면서 감각적인 트렌드적인 것들을 많

이 입수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너무 많으신분 보다는 어느정도 경험도 가지고 있고 앞으로의 방향성이나 이런것들을 새로운 아이디어로 얘기할 수 있는 분들도 좀 참여가 되셨으면 해서요.

○ **이사 박창훈**

알겠습니다.

○ **司會 경영국장 최현희**

그리고 조주연 박사님은 서울대 미대 미학 강사로 계시는데요 지금 현대미술사에 대한 확고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분으로 많은 책을 저술을 하였고 해외에 유명한 미술사 관련 책들을 한국으로 번역해서 선보이고 있는 미학박사님이시고 현대미술사를 강의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저희 미술관이나 앞으로 공공예술 공간을 만드는데 많은 어드바이스를 해주실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사 박창훈**

알겠습니다.

○ **司會 경영국장 최현희**

그리고 또 14번에 있는 한도연 이사님이시구요 이분은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로 계십니다 이분이 성남지역에 있는 여러 역사서를 집필도 하셨구요 성남시가 역사가 부족하다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산증인으로 성남시를 역사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신걸로 하셨습니다.

○ **이사 박창훈**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우리 관내에도 있는데.

○ **司會 경영국장 최현희**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근무하시고 계시구요

○ **이사 박창훈**

성남지역 역사를 정리하고 계시다?

○ **司會 경영국장 최현희**

정리를 한 책이 6권이 집필이 되어 있습니다.

○ **이사 박창훈**

네 다행히 이런분들이 또 응모를 해주셨네요.

○ **司會 경영국장 최현희**

18번 김평호 이분은 전 MBC 프로듀서 셧구요 지금 현재는 단국대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지금 현재 미디어센터를 운영하는데에도 많은 자문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 **司會 경영국장 최현희**

19번 차승재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은 성함만 들어도 다들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한국 영화사에 중심이 되어 있으신 분 이시고 저희 미디어센터 라던지 웹툰을 2차적으로 가공하고 많은 어드바이스를 해주실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司會 경영국장 최현희**

다음 21번 송창 이분은 현재 성남민예총 회장님이십니다.

○ **司會 경영국장 최현희**

24번 가장 젊은 분이신데요 이성준 이분은 지금 현재 뮤지컬을 전공하고 있고 저희 공연이나 뮤지컬 제작이나 이런부분에 많은 도움을 주실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국대에 뮤지컬 전공 조교수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 **이사 박창훈**

뮤지컬 쪽이라..

○ **司會 경영국장 최현희**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번 민경찬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교수로 계시구요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계십니다.

○ **이사 박창훈**

우리 문화재단에서 이름을 올리시고 계시네요

○ **司會 경영국장 최현희**

네 지금 현재 문화재단 자문위원 역할도 하고 계십니다.

○ **이사 박창훈**

23번에 민경오씨.. 공무원 하던분

○ **대표이사 박명숙**

네. 최근에 퇴임하셨구요. 문광부하고도 연결이 잘 되어 있으시구요. 우리 재단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이네요

○ **이사 박창훈**

저도 오기전에 자료를 봤더니 공직경험도 많고 정부부처에 이렇게 오랫동안 계셨던걸 확인했습니다.

○ **대표이사 박명숙**

브릿지 역할을 잘 해주실 분이라 생각합니다.

○ **이사 박창훈**

그런데 민경오씨 보다 김평호씨가 더 이사님으로 적합하다 이렇게 재단에서는 생각하시는건가요?

○ **司會 경영국장 최현희**

네 저희가 앞으로는 동영상이나 1인미디어 시대에 맞춰서 미디어쪽을 좀더 저희들을 어드바이스 해주실 분으로 모시는게 더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사 신경천**

11분 선임중에 예총 회장님 자리를 비워를 놓고 11자리에요?

○ **이사 박창훈**

아니쥬 10자리

○ **司會 경영국장 최현희**

감사님도 1분 포함입니다.

○ **이사 신경천**

어차피 저희들 보다는 분야별 전문성이나 이런것들이 중요하니까 추천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보입니다.

○ **司會 경영국장 최현희**

일례로 이번에 너무 좋은분들 많이 오셔가지고요  
이력서 보는데도 시간이 엄청 걸렸습니다.

○ **대표이사 박명숙**

나이 제한은 없쥬?

○ **司會 경영국장 최현희**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 **대표이사 박명숙**

김대진 원장님은 00년 생이시네.

○ **이사 신경천**

문화원장님은 기존에 했던 이사님들은 모두 안되시는줄 알고 계셨습니다.

○ **이사 박창훈**

문화원장님은 시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주셔야 할분이십니다.

○ **司會 경영국장 최현희**

국장님이나 실장님은 문화원장님을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이사 박창훈**

당연히 모셔야지요

○ **경영국장 최현희**

지방 출자출연법에서 (임원 선임은)공개모집을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 **이사 박창훈**

문화원이 출자출연기관이예요?

○ **이사 신경천**

아니예요. 예총도 아니고.

○ **경영국장 최현희**

아뇨. 성남문화재단이 출자출연기관입니다.

2015년 이전에는 실장님 말씀 주신것처럼 문화원장, 예총회장을 당연직 이사님으로 모셨었는데요. 저희가 지방 출자출연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라고 되어있으며, 국장님과 실장님께서서는 당연직입니다.

○ **이사 신경천**

그러면 당연직으로 정관개정을 안해도 되는거네요?

○ **이사 박창훈**

그러면 예총 회장님은?

○ **경영국장 최현희**

네. 다시 공개모집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 **이사 박창훈**

그러면 지금 뽑아놓으면 (회장이) 바뀌면 지난번에 임인출 회장처럼 그분이 계속하시는 건지?

○ **경영국장 최현희**

네.

○ **이사 박창훈**

그러면 나는 여기다 민경오씨를 해놓으면 그래도 재단의 의지대로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없는거지

○ **이사 신경천**

그러면 대표이사님하고 제가 (하면 되는데) 그걸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참석자 전원이 해야만이 성립이 되는건지 아니면 2/3나 과반이면 그 사람이 선임이 되는 건지를 확실히 해줘야 많이 대표님하고 저하고 이성준씨를 하면하면 실장님이 민경오씨를 뽑아도 이성준씨가 되는 거잖아요

○ **경영국장 최현희**

지금 김평호 후보자님과 민경오 후보자님을 놓고 상의하시는 겁니다.

○ **이사 신경천**

김평호 응모자와 민경오 응모자 중 우리는 김평호 응모자를 지지하는 3명 다 똑같이 안 해도 제가 여기다가 '가'를 하면 실장님이 김평호가 아닌 민경오를 '가'를 해도 김평호씨가 선임이 된다 이 얘기잖아요.

○ **경영국장 최현희**

서류를 검토하시고 논의를 하셔서 토의를 하시고 선임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세분의 의견이 일치하셔야 좋을 듯 합니다.

○ **이사 신경천**

실장님 의견있으신가요?

○ 이사 박창훈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아 김평호씨로 결정하는게 좋을듯합니다.

○ 대표이사 박명숙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理事 있음 ]

없으시면 의안번호 제390호 선임직 임원 선임안은 심사를 통해 이사 10명, 감사 1명을 선임하여 총 11명의 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폐 회

(대표이사)

- ▶ 수고 많으셨습니다.
- ▶ 이것으로 제86회 성남문화재단 이사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